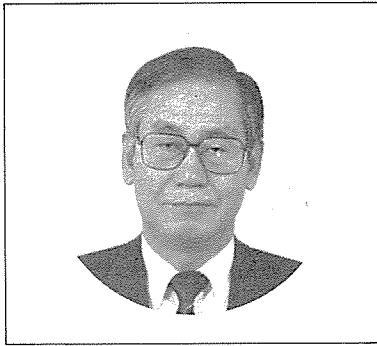


“科學技術人의 創造的 노력 복돋워 民主化된 과학기술行政 具現할터”



金 鎮 炫 과기처장관

희망 찬 辛未年 새 아침을 맞아, 먼저 민주化, 産業化, 國際化라는 國民的 所望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繁榮과 康寧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1991년 새해는 地自制 실현과 함께 民主化의 나라가 이땅에 펼쳐지고, 지난해 이룬 北方外交의 결실은 國內外的인 政治的 安定과 經濟的 成長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와 함께 풍요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뿌듯이 안겨지는 도약의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人類의 文明史를 회고해보면 한 나라의 興亡盛衰는 주변 國家와의 力學관계와 그

나라의 自立度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舊韓末이나 2次戰後에 우리가 겪은 참극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美國, 日本, 中國, 蘇聯이라는 4大強國의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國家와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는 位相을 정립하지 못하는 한 「또다른 悲劇」을 후손에게 남겨주지 않을 수 없다는 地政學的인 숙명을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民族에게는 다시한번 雄飛할 수 있는 또다른 기회와 손짓을 받고 있습니다. 美·蘇 冷戰의 終熄과 美·日·蘇·中·EC라는 經濟의 多極化, 東歐圈 國家와의 修交 및 經協, 긴장의 원천이었던 北韓의 불가피한 개방 등이 바로 것입니다. 따라서 民主化와 成長의 과도기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욕구와 갈등을 자제하고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和合과 슬기로운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10년 남짓한 대망의 21세기 先進民主福祉 國家를 건설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世紀的 變化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祖上」이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科學技術을 발달시켜 번영과 화합과 평화를 위한 슬기로운 도구로 활용한다면 先進福祉의 실현을 결정적으로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科學技術은 어떤 한나라가 地球村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판단해주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의 과학기술화, 농업·농촌의 과학기술화, 서비스업의 과학기술화, 공동체생활의 과학기술화야말로 1990년대의 애로를 극복하고 21세기에 先進國化, 中心國家化, 1等民族됨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政府는 올해에 科學技術人的 창조적 노력을 북돋우고, 온 國民의 과학기술에 대한 창의를 도출하는 한편, 그 바탕 위에서 科學技術 政策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民主化된 科學技術 行政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政府는 世界的으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技術領域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당장 우리 産業의 발등위에 떨어진 불인 製造業의 活性化와 高附加價値창출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에 역점을 둬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産業構造를 高度化시켜 「페르시아만 事態」라는 위기를 호기로 역전시키고, 「UR 協商」테이블의 애로요인인 農業과 엔지니어링분야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技術의 開發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모스크바 宣言으로 문호가 크게 열린 北方進出의 기회를 우리 經濟發展과 접목시키기 위하여 韓·蘇技術協力を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先進國과의 기술협력과 공동연구를 美·日·蘇·EC 등과 方位體制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大德研究團地의 早期建設과 北方의 科學産業研究團地 建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등 地方化時代의 개막에 부응하는 地域技術革新事業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尖端技術의 便益과 부작용에 대한 오해로 인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現代科學技術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운동」을 全國的·體系的·積極的으로 추진하여 科學技術에 대한 汎國民的·汎社會的인 지지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國家科學技術發展의 主體인 科學技術投資와 技術인력이 계획대로 확대되고 양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多技化된 科學技術 政策의 유기적 상호조화를 이루어 政府政策의 一貫性不在 또는 상호모순 때문에 政府나 企業차원의 研究開發活動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는 地方議會선거와 함께 「政治의 季節」이 성숙될 것이며, 이 열기에 반비례해서 科學技術에 대한 投資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科學技術界의 創意的인 노력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하며, 外部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치밀한 대처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는 研究開發 成果를 可視的으로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더 많은 財源과 支持를 확보하는데 科學技術人 모두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國民여러분과 科學技術人 여러분의 康寧과 번영을 간곡히 기원하는 바입니다.